

코스콤 비마이유니콘(BMU), 기업과 상생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나

»»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1. 다양한 비상장 기업 친화적 서비스를 통해 구주 거래와 더불어 기업의 동반 성장까지 도모

- ① (교육 서비스) IPO 아카데미를 개최(3/23~24)하여 비상장 기업의 정규 시장 상장 및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교육 진행. 증권사에서 IPO 실무를 담당했던 강사들을 모집해 실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 구성. 후반부엔 참여 기업들 간 네트워킹 행사를 마련해 협업 촉진. 3월 아카데미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5월 중 2차 행사 개최 예정.
- ② (전자주총 서비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대세로 자리 잡는 중. 하지만 기존 서비스 제공자는 상장사 위주의 서비스에 그쳐 한계를 드러냄. BMU는 한국전자투표, 쿼타북과 협업을 해 전자투표를 포함한 비상장 기업의 주주총회 전(全) 과정을 자동화·비대면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 기업이 주주관련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 ③ (주주명부 서비스) 블록체인 상에서 주주명부를 관리. 허가된 참여자들만 노드에 참여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해 투명한 주주명부 변경·관리 가능.

2.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부가 서비스를 통해 초보자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가능

- ① (기업 정보) 1100만개 기업 정보를 보유 중인 한국평가데이터와 제휴해 비상장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 제공 예정. 이를 통해 기업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BMU 이용자의 합리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를 지원할 예정.
- ② (투자 정보) 위클리 스타트업 투자 랭킹, 유망 비상장 기업 소개 등 다양한 비상장 기업 소식을 카드 뉴스 형태로 손쉽게 볼 수 있는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페이지 등)를 운영 중. 이를 통해 대중들이 비상장 주식 투자를 친밀하게 느끼고 다가설 수 있는 계기 마련.
- ③ (거래 지원 서비스) KEB하나은행과 연계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 주권미발행 확인서 발급, 양수도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보자라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장치 마련.